

중기부-네이버-소상공인聯

소상공인 창업·경영 교육 '파트너스퀘어' 추가 설치

현재까지 38만명 지원... 교육 영상 제공
강북 2곳엔 지역특성 반영 '특화공간'도

소상공인연합회와 네이버가 소상공인·대기업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부산에서 박영선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서울 2곳, 부산 1곳, 광주 1곳 등 총 4곳에서 운영하던 파트너스퀘어를 올해 서울 강북에 2곳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는 대전 등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는 소상공인에게 창업·경영 관련 교육, 사진·영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38만명의 소상공인 교육 등을 지원받았다.

또 세 기관은 파트너스퀘어를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확대하고, 네이버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기획전 개최 등 판매·홍보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의 소상공인 창업 교육과 파트너스퀘어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가제) '소상공인 창업명인 100인에게 듣는다' 프로그램도 협력·제작해 네이버 TV를 통해서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13일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부산에서 열린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협약식'에서 (왼쪽부터)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대기업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발적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계속 이끌어내는 한편,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프로젝트 꽃'을 통한 자발적 상생의 노력은 네이버가 우리 경제에 오랫동안 기여하고, 작은 개인으로 시작한 중소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약속"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분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중진공

혁신성장-공정거래 실현 공동사업·해외 진출 지원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 연계
생태계 조성해 유니콘기업 탄생 도울 것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혁신성과 공정거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와 중진공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대표 단체와 대표 지원기관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은 중기중앙회가 중진공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제 31회 중소기업주간' 첫 행사로 진행된 이날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상호 지원 사업을 연계, 협력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와 중진공은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불공정거래 피해 및 경영위기 기업 지원 ▲정책공조 추진 및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아울러 양측은 제조 현장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확산,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해외 거점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355만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지원 대표기관인 '중진공'이 만나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부터 해외진출까지 중기중앙회와 더욱 긴밀한 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중소 관련 기관·단체들

시너지 위해 '맞손'

NHN고도 사모펀드로부터 400억 투자 유치 산불피해 '1:1 전담해결사', 346社 밀착지원

NHN은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로부터 커머스 사업 투자금 400억원을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케이스톤은 2007년에 설립, 누적 약 1조7000억원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국내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다.

NHN고도는 NHN이 주식을 보유한 온라인쇼핑몰 솔루션 기업이다. 이번 투자에 앞서 NHN고도는 에이컴메이트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현재 NHN은 NHN고도와 에이컴메이트 주식을 각각 100%, 61.8% 보유하고 있다. NHN은 양사간 시너지를 공고히 하며 국내 및 중국 커머스 플랫폼 사업 공략

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케이스톤 파트너스 측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가능성과 NHN이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보유한 경쟁력을 고려할 때 NHN고도와 에이컴메이트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향후 실적 상승은 물론 빠른 시일 내 IPO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 솔루션 기업 NHN고도는 대표상품인 '고도몰5' 통해 쇼핑몰 제작, 운영, 분석, 튜닝 등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 현재까지 약 10만개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이 창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중기부, 맞춤형 전담해결 지원 종료 5월말까지 피해기업 복구 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산불 피해기업의 1:1 맞춤형 전담해결사 지원을 12일로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산불 피해기업의 복구 지원과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강원중기청과 유관기관 직원 합동으로 '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배치하고 총 346개 피해 업체를 밀착 지원했다.

전담해결사들은 많은 피해기업의 복구를 진행 중이며, 영업을 재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날부터 본업에

복귀했다. 전담해결사들은 복구 후에도 5월 말까지 담당 기업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해 피해기업의 복구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피해 기업 수는 346개이며, 피해 금액은 1376억원이다. 중기부는 22억5000만원 규모의 용자 7건과 218억7000만원의 보증 131건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달 9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강원 산불 지역 방문 당시 전담해결사를 지정해 피해기업과 1:1로 매칭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담해결사들은 지난달

10일부터 약 한 달간 피해기업 재해 자금 및 보증 지원 등 중기부 지원제도를 제공했다. 아울러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국민 성금 지원 등 지자체의 지원제도도 신속하게 안내했다. 또한, 전담해결사들은 현장에서 발굴한 30여건의 애로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피해기업에 즉시 안내해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피해기업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강원중기청 영동사무소에서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시리즈A 라운드 48억 투자 유치

자율주행 레이더 개발 기업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 48억원의 시리즈A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카카오펀더스, 뮤렉스파트너스,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현대투자파트너스와 미국 실리콘밸리의 헤미벤처스가 공동 참여했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시스코, AT&T 연구소를 거쳐 LG 그룹에서 임원을 역임한 김용환 대표를 주축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들은 차량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레이더(RADAR)를 개발한다. 레이더란 전자파를 통해 물체의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는 센서 시스템이다. 특히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의 4-D 이미지 레이더는 물체의 거리, 높이, 깊이와 더불어 속도까지 감지하며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

앞으로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과의 협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코리아센터 쇼핑몰운영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FG' 선택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는 쇼핑몰 운영자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토털플랫폼 메이크에프지(MakeFG)를 선택했다고 13일 밝혔다.

MakeFG는 해외쇼핑몰 구축부터 운영대행, 해외광고, 해외물류, 오픈마켓 입점까지 해외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해외진출 맞춤형 플랫폼이다.

그동안 메이크샵은 해외쇼핑몰 구축 솔루션 '메이크글로벌'과 해외직판 오픈마켓 'OKVIT' 등을 운영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쇼핑몰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메이크에프지는 기존 운영하는 메이크샵의 해외진출 특화 서비스와 함께 몰테일 물류센터를 활용한 오픈 풀필먼트 플랫폼(OPF)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

오픈풀필먼트 플랫폼은 물류대행과 해외배송뿐 아니라 해외진출 쇼핑몰들의 가장 큰 고민인 물류반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이크에프지는 메이크샵, 메이크글로벌 회원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원하는 서비스만 취사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